

전남産 한우 '명품' 입증...1등급 비율 52% 전국 1위

도, 품종 개량 등 '동물복지형 축산' 시책 주요 일조량 풍부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도 한몫

전남도는 12일 "지난해 도축한 한우의 등급 판정을 분석한 결과 전남산의 한우 거세 1+ 등급 이상 출현율이 52.1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49.8%)보다 2.3% 포인트 높은 것이다. 연간 2만4000마리 이상을 출하하는 지역 가운데 1+등급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그 다음으로 전북(50.5%), 경기(50.1%) 순이었다.

이처럼 전남산 한우의 육질이 전국에서 가장 좋게 나타난 것은 도가 지난 2008년 녹색축산 5개년계획, 2011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품종 개량, 명품 브랜드 육성,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자연환경에 가까운 동물복지형 축산을 핵심 시책으로 추진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우 품종 개량을 위해 매년 4만 마리를 종축으로 등록해 개량 밑소로 활용하고, 또한 올해는 유전능력의 개량 가속화를 위해 한우 수정란 4000마리를 이식,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2년간 대, 자연환경에 가까운 동물복지형 축산을 핵심 시책으로 추진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순한한우, 녹색한우, 합평전지한우, 영암매력한우, 담양대숲맑은한우, 영광청보리한우 등 6개 브랜드를 육성, 현재 농가 2400곳이 참여해 연간 13만5000마리를 출하, 8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우 거세 1등급 이상 출현율도 전국 평균(83.7%)보다 월등하게 높은 85%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12년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영암 매력한우가 고급육 품평회 부문에 대상(대통령상)과 농장 부문에 우수상을, 고흥에서 농장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3년에는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영암(조형일)이 준우승하는 등 전남산 한우가 전국 최고 품질의 한우로 입증되고 있다.

특히 일조량이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많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조사료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 500개의 경영체에서 6만 5000ha 재배 자급률 138%를 달성, 양질의 조사료 급여로 한우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고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산 한우가 전국 최고의 품질로 분석된 것은 그동안 친환경 축산정책을 추진해온데다 한우농가에서 친환경축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윤현기기자 chadol@kwangju.co.kr



'제1회 땅끝바다 캠핑 페스티벌'이 열리는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관광단지. (해남군 제공)

땅끝바다, 가족과 함께 추억을

해남 화원면 오시아노관광단지 일대서

28~30일 '제1회 캠핑페스티벌' 개최

땅끝바다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가족캠핑 축제가 열린다. 해남군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화원면 오시아노관광단지에서 '땅끝바다 캠핑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캠핑 페스티벌은 해남의 청정자연을 느끼는 동시에 건강한 먹거리를 체험하면서 가족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특히 바다를 접한 휴양지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대에 300개의 텐트가 일제히 펼쳐지며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페스티벌은 가족 추억을 되새기고 친환경 먹거리로 건강을 다지며 밤바다 낭만을 즐기는 추억마당, 힐링마당, 낭만마당으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캠핑강좌를 통해 해

남특산물을 활용한 캠핑요리가 소개된다. 레저체험에서는 바다 카약 왕과 바다낚시를 진행, 재미를 더한다. 이 밖에도 가족애를 더할 명랑운동회, 야외 영화제, 모닥불 바비큐, 밤하늘 별자리 관찰하기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남 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를 초청, 1박 2일 캠핑 체험도 진행한다. 캠핑 페스티벌에 참가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사)전남도 레저스포츠협회 (061-282-7543)에 참가등록을 해야 하며, 캠핑장비를 갖춰야 한다. 텐트당 1만원의 참가비가 있지만 해남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해남미소 적립금으로 전액 지급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수산의 미래산업화'

오늘 심포지엄 개최

주영순 의원·목포대

목포대 해양수산자원학과와 갯벌연구소는 13일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수산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친환경양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남도·목포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수산식품의 안전한 생산시스템 확립과 국내 양식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환경문제 해소 및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문가, 업계 종사자 및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업 현황 및 발전방향(농촌진흥청 김용기 박사) ▲친환경수산물 인증체계 및 현황(경상대 정보영 교수) ▲친환경 양식기술 및 발전방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미선 박사)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벌인다.

주영순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2012년 6월 시행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현재 친환경어업 육성관리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친환경어업 육성관리 기본계획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쪽파밭 잡풀 제거. 지난 11일 무안군 현경면 한 쪽파밭에서 아낙네들이 봄을 맞아 잡풀을 제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시향 사태 다시 원점으로

시, "단원들이 약속 파기...정리하고 강행"

시향단원들 "사실상 해체 수순" 강력 반발

해결의 기미를 보이던 목포 시향 교향악단(목포시향) 사태(광주일보 2014년 3월 10일 10면)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목포시와 시향 단원 대표 측은 지난 10일 목포노동지청 중재로 지난 달 25일 정리하고 통보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정리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황선범 노동지청장, 시향 단장인 윤진보 부시장, 시향 함인호 지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12일 시향 단원들의 약속 파기를 이유로 오는 29일 예정대로 정리하고를 강행하기로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단원 정리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예정된 시정양 집회도 취소하기로 해놓고도 하루 만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시향이 합의한 사항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정리하고를 단행할 계획이다. 시향 사태는 시의회에서 올해 예산이 40%(5억5000여만원) 삭감하자 목포시는 단원 64명 가운데 27명을 정리하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향 단원들은 "대규모 정리하고는 사실상 해체다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무안군 재정 조기집행 13.9% 저조

군, 역점 사업 걸두고 정부 인센티브도 못받아

무안군의 지방재정 균형집행(조기집행) 사업실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에 따르면 9일 현재 군 재정 조기 집행비율은 13.9%에 불과하다. 이는 전남 평균(17.0%)에 비해 낮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위로 하위권을 헤매고 있다. 22개 시·군 가운데 순세 관공문화과의 집행률이 2.7%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친환경농업과 3.4%·해양수산과 4.1% 순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에 조기사업 집행에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데다 예산도 60%밖에 사용하지 않아 나머지 568억4450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다. 당시 관공과 98억1126만원, 지역개발과 94억4411만원, 체육시설사업소 65억9148만원 등 실·과·소의 예산이 미집행됐다. 이처럼 지난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각종 군 역점 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NAVER 광주 소리큐 광고심의필 2012-10-18-1326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NEW **soriQ** 보청기(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 S20, S22, ST33

TV시청할때 강의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지사(제이에스 메디칼) 062) 227-1700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목포(삼화) 274-5987
서구 352-7788 목포(건영) 243-7463
남구 676-7719 순천 744-8605
북구 512-7998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